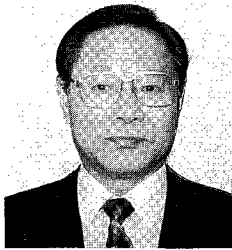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IMF시대에도 희망을 갖자



김 순 재
건국대학교 수의학부 교수

요 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또는 직장, 어느 모임에서나 인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부터 시작하여 나아가서는 나라 걱정으로 가면서 국가경제 위기로 걱정을 몰고간다. 자기 앞에 떨어진 불황은 제쳐놓고 나라 걱정을 하니 언뜻 듣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애국하는 마음은 똑같은 심정이다는 것은 얼굴 표정이나 마음속으로 상통함을 느낄 수 있다. IMF구제 금융을 받아야 한다고 임창열 재경원 장관의 발표를 들었을 때만 해도 양계업계에 닿는 경제 위기의 감촉은 둔감하였다고 느껴진다. 그후 불어닥친 것은 환율 급상승으로 사료의 원료 구입이 어렵게 된다고 하니 사료 구입은 현금 주고도 마음대로 구입이 어려워졌다. 사료값이 30% 가까이 인상해도 앞으로 원료 확보가 순조롭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의 금융공황, IMF 식민통치, 국가부도 위기니 하는 절망적인 보도는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WTO 무역체제하에 모든 부분이 개방되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갖게 되었는데다 IMF통치하에서 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불안을 가중하여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구걸하는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사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업계는 환차손 때문에 안아야 하는 손실은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환이 없어 신용장을 개설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또한 신용장을 개설하여도 외국은행이 우리 한국의 은행을 못 믿겠다고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위기속에서 IMF 구제금융의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참고 견디어 낼 수 있는 기

질을 한국민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겼고 1945년 8·15해방의 기쁨속에서 혼란과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을 경험하였고 6·25와 같은 동족상쟁의 쓰라린 아픔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된 상태에서 회생하였다. 여기에 4·19혁명, 5·16이 있었고 12·12사태가 있을 때도 난국을 극복하는데 이골난 국민이다. 즉 무일푼에서 경제 살리는데 산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60년대로 되돌아가 내핍생활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때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구호 아래 전기, 기름, 외화를 아끼지 않을 수 없었다. 쓸래야 쓸 수도 없었고 심지어 먹을 식량도 부족하여 굶주리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고 어떻게 절약하는지를 모른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못 먹고 못 썼다는 노년 세대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제는 불가불 내핍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해외관광이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흥청망청 잘 써 왔다. 이제 알고 보니 외채 들여다 평평 써 댔다는 것을 나도 이 지경이 되어서야 알았으니 내가 너무 경제에 무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잘못 유도하여 모르고 살아왔는지 자문자답해보아도 해답은 안 나오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은 사람은 외채가 얼마나 되고 외화가 얼마나 한국은행에 있는지 또 얼마나 외화를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얼마를 초과해서 쓰면 안된다는 것도 모

66

사람은 못살다가 잘살게 되면
돈의 귀중함을 알고 절약하면서
근검하게 살 수 있지만 잘살던 사람은
근검절약이란 생소하게 느껴지고
절약하는 방법을 모르며 뼈아픈
불편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99

르고 있었다. 다만 정부에서 해외 나가는데 1인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를 바꿔 준다, 10,000달러를 바꿔 준다고 하기에 썼을 뿐이다. 알고 보니 빚 얻어다 쓴줄 몰랐다고 하면 변명이 될는지, 이런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와서는 절전하는 방법으로 자정을 넘어서는 외등, 네온사인을 끄기로 하고 아파트의 실내 온도를 1℃ 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60년대에 귀가 아프도록 그런 운동을 들어왔고 또 실천을 해 왔으며 실제로 없어서 에너지 절약을 했었다. 우리 속담에 돈은 있을 때 아끼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였다. 절대로 빈말이 아니다. 사람은 못살다가 잘살게 되면 돈의 귀중함을 알고 절약하면서 근검하게 살 수 있지만 잘살던 사람은 근검절약이란 생소하게 느껴지고 절약하는 방법을 모르며 뼈아픈 불편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뉴스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 넣고 있어 마치 여제가 옛날 같은 감을 주고 있다. 작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의 사설에 보면 국제금융기에 알려진 한국의 외채총액은 해외법인분을 합쳐 2천6백억 달러에 이르고 이중 단기외채는 1천억달

러가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총외채규모가 당초 정부가 추정된 1천3백억달러의 두배에 달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도 그 외채액수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하니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어리벙벙한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다. 임창열 경제 부총리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외채규모를 2천5백억~3천억 달러라고 보고했다는데 그것도 추정치라고 한다. 요사이 정부 발표는 1,530억 달러라고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GNP는 1만달러라고 자랑하였을 때 알고 보니 빗 얻어다 1만달러로 올려놓고 자화자찬한 꼴이 되었으니 경제에 우매한 우리로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부심 속에서 잘살아 왔다고 치사(致謝)해야 되는지 자중심으로 마음을 돌리고 싶다.

앞으로 우리경제의 구조적 개선은 시장경제 원리를 토대로 경쟁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파산되어도 국가에서 돌보아 줄 수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와 같은 원료,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수출하는 현실에서 국제경쟁력에 견디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앞서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을 믿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가부도 위기속에서 기업인은 외채상환 독촉장과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만 있을 순 없다. 6·25와 같은 폐허속에서 오늘의 경제를 이룩하여 살아온 한국인의 기질을 발휘하는 정신으로 새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를 살린다는 온 국민의 일치된 합심을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으로 참고 노력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속에서 양계인도 동참한다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새정부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픔을 참고 이겨냈을 때의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희망은 있어도 절망은 없을 것이다. **양계**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주간 양계속보

-주간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